1군 콜업 박준표 "악으로 깡으로 던지겠다"

지난 2년 잦은 부상 시달려…함평서 이 갈고 준비
공 묵직해지고 포크볼 장착…마무리 후보군 포함

"두려움 없이 싸우겠습니다."

때를 기다리던 KIA 타이거즈 사이드암 박준표가 '후회 없는 시즌'을 예고했다.

KIA 박준표는 변화무쌍한 공으로 팀의 필승조로 활약했던 선수다. 하지만 뼛조각 제거 수술을 받는 등 지난 2년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냈다.

올 시즌 시작도 함평이었다. 모처럼 해외에서 진행된 스프링캠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서 박준표는 함평에서 이를 갈았다. 애리조나는 물론 오키나와 2차 캠프 참가도 불발됐지만 박준표는 기회를 노렸다.

그리고 지난 26일 김기훈과 전상현이 엔트리에서 제외되면서 박준표가 김유신과 함께 1군에 콜업했다.

28일 LG와의 홈경기에서 시즌을 연 박준표는 이날 3명의 타자를 상대해 1개의 탈삼진을 더하는 등 1이닝을 깔끔하게 처리했다.

이어 30일 KT전에서는 선발 이의리가 11K의 탈삼진쇼를 펼치고도 제구 난조로 5회를 끝으로 물러났고, 임기영에 이어 팀의 세 번째 투수로 나와 1.1이닝을 책임졌다. 이번에도 피안타, 볼넷 없이 탈삼진 하나를 더한 완벽투였다.

박준표는 부상 전 모습을 떠올리게 한 위력적인 구위에 포크볼까지 장착하면서 상대의 방망이를 끌어냈다.

최고의 모습으로 1군에 왔지만 기다림의 시간, 위기도 있었다. 박준표는 4월 30일 고양 히어로즈와의 퓨처스 경기에서 아웃카운트를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고 5실점을 했었다. 이 경기 후 박준표는 머리를 삭발하고 의지를 다졌다.

"한달 전 경기에서 5자책점을 내줬다. 더워서 머리를 밀었다"며 웃은 박준표는 "2군에서 준비를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었다. 멘탈적인 부분이 걸려서 그렇지 컨디션은 물론 아픈 곳이 없으니까 스트레스도 없다"고 이야기했다.

공이 묵직해지고 있고 포크볼로 경우의 수까지 늘려놓아 시작이 좋다. 박준표는 "던질 때 볼에 힘이 많이 실리는 데 느껴진다. 그래도 10경기 이상은 잘 던져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웨이트와 하체 훈련 등 2군 시스템에 따라서 운동을 많이 했다. 꼬임 운동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포크볼을 2군에서 계속 연습한 덕분에 잘 됐는데 1군 와서도 적절하게 타이밍을 뺏고 있다. 2016년에 조계현 코치님이 손 작으니까 싱커를 스플리터식으로 던져보라고 하셨다. 군대가서 체인지업 던진 이후로 섞어 던지기는 했다. 하지만 경기에서 좋은 구종으로 빨리 승부해야 하니까 던져볼 여유가 없었다"며 "몇 년 결과가 안 좋다 보니 타자들이 알고 친다는 느낌이 들었다. 타이밍을 앞에 두고 치는 모습이었다. 포크볼을 추가하면서 타이밍 싸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상의 컨디션에 필승조로 활약했던 경험도 있는 만큼 박준표는 팀에 합류하자 마자 '마무리 후보군'에 포함됐다. 정해영이 재정비를 위해 엔트리에서 말소됐고, 김종국 감독은 타자들에 맞춰서 집단 마무리를 가동하겠다고 예고했다. 그 후보 중에 한 명이 박준표다.

박준표는 "아직 내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아예 안 하려고 한다. 싸워서 이기자는 마음이지 상황을 생각할 여유는 없다"며 "야구 하는 자체가 좋다. 팬들이 있는 곳에서 야구하는 게 행복하다. 잡생각하면 결과가 안 좋았다. '악으로 깡으로 던지자, 후회 없이 하자'는 마음으로 왔다. 맞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예전과 똑같이 도망가지 않는 피칭을 하면서 자신 있게 던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박준표

WBC 대표팀 일부 선수 밤샘 술판 '논란'

선수 3명 음주 사실 인정
"경기 없는 휴식일 마셨다"
KBO, 후속 조치 검토

한국 야구 대표로 올해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한 선수 중 3명이 대회 기간 술집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했다.

프로 선수들이 주축이 된 야구대표팀을 운영하는 KBO 사무국은 일본 도쿄에서 열린 WBC 1라운드 기간 술집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지목된 세 선수의 소속팀에는 경위서를, 세 팀을 포함한 9개 팀에는 사실확인서 제출을 요청해 내용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대표 선수를 배출하지 못한 유일한 구단인 한화 이글스를 뺀 9개 구단이 사실확인서를 KBO에 냈다.

KBO 사무국은 3개 팀 경위서에는 언론 보도로 알려진 의혹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9개 팀 사실확인서에는 대표로 출전한 소속 선수들에게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을 각각 요청했다.

KBO 사무국은 먼저 경위서를 확인한 결과, 세 선수가 술집을 출입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일본프로야구팀과 평가전을 오사카에서 치르고 본선 1라운드 장소인 도쿄로 이동한 3월 7일과 경기가 없는 휴식일(3월 11일) 전날인 10일 오후에 술을 마셨다고 선수들은 주장했다.

다시 말해 세 선수는 한국 대표팀의 WBC 성적을 좌우할 경기로 첫손에 꼽힌 호주전(3월 9일)과 일본전(3월 10일) 전날인 3월 8일, 3월 9일에 술을 마시진 않았다고 밝혔다.

KBO 사무국은 또 사실 확인서에 근거해 세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25명(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거인 김하성과 토미 현수 에드먼은 제외)은 대회 공식 기간인 3월 13일 중국전까지 유흥업소에 출입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KBO 사무국은 경위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국가대표 운영 규정에 어긋남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조사위원회를 가동해 후속 조치를 결정할 참이다.

한 온라인 매체는 30일 대표팀의 세 선수가 3월 8일과 9일 도쿄 유흥주점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고 보도해 큰 파장을 낳았다. /연합뉴스

지역 출신 3명 고교·대학 야구 올스타에

송원대 정현수·동강대 임주찬·광주일고 배강 선발

제1회 한화 이글스배 출전

'제1회 한화 이글스배 고교·대학 올스타전'에 송원대 투수 정현수(4년), 동강대 내야수 임주찬(2년), 광주일고 포수 배강(3년)이 출전한다.

이들은 최근 고교·대학 올스타에 선정되면서 6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 파크에서 열리는 올스타전 무대를 밟는다. 올스타전 명단은 KBO 10개 구단 스카우트들이 참가한 선발 선수 회의를 통해 선정됐으며, 고교·대학 선수들의 기량과 현재 컨디션 등을 검토해 팀당 24명(투수 9명, 포수 3명, 내야수 7명, 외야수 5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동강대 유격수 임주찬은 빠른 발과 안정된 수비 그리고 좋은 어깨를 바탕으로 올스타전 무대에서 어필 무대를 갖는다.

수비가 강점인 임주찬은 올 시즌 대학야구 U리그 10경기에서 타율 0.263(38타수 10안타), 11타점, 7득점, 3도루의 성적을 냈다. 2루타와 홈런도 각각 3개씩 기록했다.

임주찬은 KIA 타이거즈에서 활약했던 좌완 임기준의 친동생으로 형에 이어 프로 무대에 도전하는 기대주이다.

'커브'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송원대 좌완 정현수도 올스타전에 나선다.

부산고를 거쳐 송원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현수는 남다른 커브로 JTBC 예능 프로그램인 '최강야구'에서 야구팬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수준급의 커브와 포크볼 등 변화구가 좋은 정현수는 올 시즌 U리그 6경기에 나와 30.1이닝을 소화하면서 18피안타(1피홈런) 7사사구 8실점(7자책점), 2.10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58명의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등 놀라운 탈삼진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광주일고의 배강도 파워를 앞세워 올스타에 선정됐다. 배강은 올 시즌 13경기에 나와 45타수 9안타 0.200의 타율에 머물고 있지만 3개의 홈런과 함께 15타점을 기록하는 등 힘의 야구를 선보이면서 수비에서 강점을 보이는 진흥고 포수 김재민과 함께 스카우트의 주목을 받고 있다.

동강대 임주찬.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제공〉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서 11월 전국 장애인 e스포츠대회

광주 e스포츠 경기장서 개최

전국 장애인 e스포츠 대회가 11월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시,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장애인체육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 31일 광주 e스포츠 경기장에서 장애인 e스포츠 대회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가칭 '제1회 장애인 e스포츠 대회'가 오는 11월 광주 e스포츠 경기장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지난해 '전국 장애인 e스포츠 한마당'을 개최하고, 지난 4월에는 전국 최초 장애인 e스포츠 프로게임단인 '무등 선수단'을 창단했다. 2019년 제정된 광주시 e스포츠 진흥조례에 장애인 e스포츠 지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안도 발의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강진서 3~4일 '중등 1학년 축구 페스티벌'

강진군이 전국 배드민턴 대회에 이어 '강진청자배 중등 1학년 축구 페스티벌'을 오는 3일부터 4일간 축구전용구장에서 개최한다.

대한축구협회 승인 대회로 전남도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32팀, 700여 명의 중등부 1학년 축구 꿈나무가 참가한다.

군은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과 학부모들에게 최적의 경기 환경 지원을 위해 천연 잔디 구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구장마다 응급차량 배치 등 경기 전 손님맞이에 나섰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 31일 "전국 최고의 스포츠 인프라를 바탕으로 강진이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최적지임을 꾸준히 홍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배준서, 세계태권도선수권서 한국 첫 금메달

'강화도 태권브이' 배준서(22·강화군청)가 2023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배준서는 30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 크리스털홀에서 열린 대회 남자 58㎏급 결승에서 러시아 출신 개인중립자격선수인 게오르기 구르트시에프를 라운드 점수 2-0으로 꺾고 4년 만에 왕좌를 되찾았다.

배준서는 경기 시작 22초 만에 주먹으로 먼저 1점을 내줬지만, 두 차례 몸통 공격과 한 차례 머리 공격으로 점수 차를 벌리며 10-2로 1라운드를 끝냈다. 2라운드에서도 몸통 공격을 다섯 번이나 성공하는 등 일방적인 경기를 펼치며 15-5로 승리했다.

배준서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건 2019년 영국 맨체스터 대회(남자 54㎏급) 이후 4년 만이다. /연합뉴스

태극기 세리머니를 펼치는 배준서.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범죄도시3
2관	범죄도시3
3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4관	범죄도시3
5관	범죄도시3, 극장판 포켓몬스터DP : 아르세우스 초극의 시공으로
6관	범죄도시3,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9관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 라이드 온
7관씨네커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스즈메의 문단속, 말없는 소녀, 타임 이즈 업2
8관씨네커플	인어공주, 드림팰리스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2023 빈 심포니 & 장한나 내한공연
일시 : 2023-06-11(일) 17: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문의 : 062-613-8235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Dear Heart」
일시 : 2023-06-17(토) 17: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문의 : 062-613-8235